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은 교회연합주일이며 농촌선교주일입니다.

오늘 오후집회는 동호회로 모입니다. 레포즈 동호회에서는 만리현 교회와 축구시합을 합니다.

: 교육부회의가 오늘 12:30에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공동서신과 계시록 통독이 15일(월)과 16일(화) 저녁 7:30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가을학기 목요성서학당이 18일 오전 10:30에 개강합니다. 히브리서(강사:김재홍 목사), 일반서신(강사: 신진식 전도사), 요한계시록(강사: 이범석 목사)를 공부합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에 도착하여 차분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과 성경봉독 시간에는 예배당 출입을 삼갑니다.

교회 점심 설거지 봉사를 하실 분은 로비의 신청서에 이름을 적어 주세요.

다음 주일에 영월 문산교회에서 친환경으로 재배한 포도를 판매합니다. 포도5kg 25,000원, 산머루 2kg 18,000원, 포도즙, 산머루즙 38,000원입니다. 많은 주문 바랍니다.

시편 중 한 편을 골라 암송해보시기 바랍니다.

출 14:19~31 / 시편 114
롬 14:1~12 / 마 18:21~35

신 31:19-21

오늘 식당 봉사 : 최경미 강금연 박운숙 김선영 이오복 조장형 곽상준
다음 주 식당봉사 : 정경례 배삼순 김미현 김진선 권현숙 구성실 김재환
오늘설거지봉사 : 2여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 청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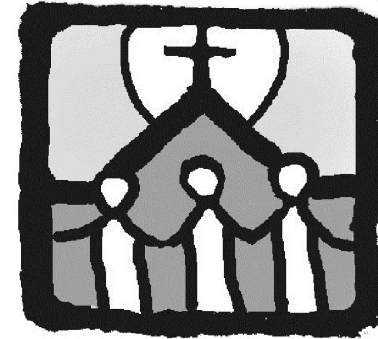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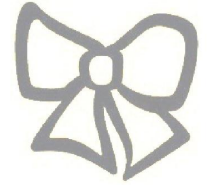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명절 연휴를 잘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족 친지와 더불어 맛난 음식과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다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길 원합니다. 저 가을 들녘의 오곡백과처럼 결실과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으로서 이 세상에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주님, 붙잡히 여겨 주십시오. 온 교회가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한 몸을 이루어, 주님처럼 이 세상을 섬기며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구명자 김근종 정옥영 김애순 김영순 김용길 최영혜 김정수 김종문
 지명주 김종철 고영애 노성희 김만균 문금석 문복순 박기영 박상규
 박시내 박영희 박예림 박옥순 방민 백묘현 서원금 송동준 김진경
 심화섭 정영란 안길상 이형숙 안정숙 양상철 박재란 원용일 최현선
 이광석 이경희 이우상 이계월 이인웅 오송경 이정은 조관행 홍선희
 주은경 하현철 최성애 한상익 정영선 한인철 조윤숙 무명2

감사헌금

곽권희 김용길 최영혜 김진중 문복순 박경규 최호열 박경원 은종인
 임명희 조순덕 무명2

생일감사헌금

박석희

녹색꿈헌금

김용길 최영혜 김흥기 시시권 백경임 장은숙 무명6

백혜숙	박성희	정두리	박영희
신진식	최경미	신진식	최경미
장영숙	신영신	장영숙	신영신
노순옥	진정숙	진정숙	문금석
박홍재	박홍재	문복순	정선희
권미숙	박미영	권미숙	허정운
김금순	김금순	김금순	이순정
곽권희	윤수진	김윤미	이정은
안홍숙	오현정	김명희	안홍숙
정영선	홍춘숙	정영선	홍춘숙
박혜경	박혜경	정현선	박혜경
김재흥	오자영		
김재흥	송형운		
이범석	이진영		
이범석	곽상준		
신진식	윤성중		

마음으로 읽는 글

아버지의 집으로 가고 싶다

- 이상국

벌써 오래 되었다

부엌 옆에 마구간 달린 아버지의 집을 떠나

마당도 골뚝도 없는 아파트에 와 살며

나는 그게 자랑인 줄 알았다

이제는 그 부드러운 풀이름도 거반 잊었지만

봄 독길에 새 풀이 무성할 때면

우리 소 생각난다

어떤 날 저녁에는

꿀집지고 돌아오는 아버지 늦는다고

동네가 떠나갈듯 우는 울음소리도 들었다

이제는 그 소도 아버지도 다 졸업했다고

이 도시의 시민이 되어 산지 오래인데도

우리 소 잘 먹던 풀밭 만나면

한 짐 베어지고

그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장로 :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붙잡히 여기며 그들을 돌볼 이를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아픔의 현장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며 사십시오.

아멘. 끝없이 들려오는 마음과 세상의 헛된 소리에 취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아픔과 고통의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동호회	설교 : 이범석 목사 기도 : 이현순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재훈 전도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하현철 권사	박영실 선생 권순 집사

9월	영접위원	김인걸 박석희 이민범 홍춘숙 김경혜 조항미
	헌금위원	방문성 강순배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신뢰를 얻지 못하면

자공이 정치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공자가 말하기를, “정치란 경제, 군사, 그리고 백성들의 신뢰이다.” 자공이 묻기를, “만약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어느 것을 먼저 버려야 하겠습니까?” “군사를 버려라.” “만약 나머지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버리지 않을 수 없다면 어느 것을 버려야 하겠습니까?” “경제를 버려라. 예부터 백성이 죽는 일을 겪지 않은 나라가 없었지만 백성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나라가 설 수 없는 것이다.”

이 구절은 정치란 백성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며 백성들의 신뢰가 경제나 국방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천명한 구절입니다.

공자가 국가 경영에 있어서 신(信)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천명한 까닭은 물론 그 기능적 측면을 고려해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국경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신뢰를 얻으면 백성들이 얼마든지 유입될 수 있었지요. 그리고 백성이 곧 식(食)이고 병(兵)이었습니다. 백성으로부터 경제도 나오고 백성으로부터 병력도 나오는 법이지요.

이처럼 백성들의 신뢰는 부국강병의 결정적 요체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논어]의 이 대화의 핵심은,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물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나라 재상으로 신상필벌(信賞必罰)이라는 엄격한 법가적 개혁의 선구자로 알려진 상앙에게는 ‘이목지신’(移木之信)이란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상앙은 진나라 재상으로 부임하면서 나라의 기강이 서지 않는 원인은 바로 나라에 대한 백성들의 불신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대궐 남문 앞에 나무를 세우고 방문을 붙였지요. “이 나무를 옮기는 사람에게는 백금을 하사한다.” 옮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금을 천금으로 인상하였지요. 그래도 옮기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상금을 만금으로 인

상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상금을 기대하지도 않고 밀질 것도 없으니까 장난삼아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방문에 적힌 대로 만금을 하사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나라의 정책이 백성들의 신뢰를 받게 되고 진나라가 부국강병에 성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어낸 이야기입니다만 ‘무신불립’(無信不立),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일화입니다.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능력은 그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에 있으며 이 인간관계는 신뢰에 의하여 지탱되는 것이지요. 신(信)은 그 글자의 구성에서 보듯이 ‘인(人)+언(言)’의 회의(會意)로서 그 말을 신뢰함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 까닭은 그것을 지키지 못할까 두려워서라고 합니다. 신(信)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라고 풀이되고 있지만 언(言)은 원래 신(神)에게 고하는 자기 맹세이므로 신(信)이란 곧 신(神)에 대한 맹세로 보기도 합니다. 사람들 간의 믿음이라는 뜻은 후에 파생되었다고 보지요. 그만큼 신(信)의 의미는 엄격한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정(政)의 의미에 대하여 조금 더 이야기해야 합니다. 정(政)은 정(正)입니다. 그리고 정(正)이란 뿌리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정치란, 우리나라 제도 정치권의 현실처럼 정권 창출을 위한 것이 아니지요. 정치를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으로 규정하기도 하고, 정치란 계급 지배의 방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논의해두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正)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정(正)은 정(整)이며 정(整)은 정근(整根)입니다. 뿌리를 바르게 하여 나무가 잘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의 근원적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치란 그 사회의 잠재적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잠재력을 극대화한다는 것은 바로 인간적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 잠재력의 극대화는 ‘인간성의 최대한의 실현’이 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 잠재력과 인간성이 바로 인간관계의 소산인 것은 다시 부연할 필요가 없지요.